

300년전 한국 최초의 대중소설 나주에서 출판되다

'구운몽' 나주판 발간 300주년, 서울서 기념행사 개최 학술대회, 특별전시로 한국문학 뿌리와 미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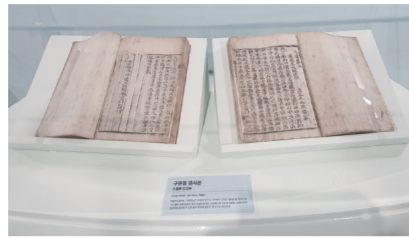
소설 구운몽 나주판 발간 300주년을 맞아 한국문학의 뿌리를 기리는 기념행사에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서울 덕성여대에서 '구운몽 나주판 출간 300주년 학술대회'가 열렸다고 1일 밝혔다.

학술대회와 특별전시를 통해 나주판 구운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문학의 미래를 함께 조명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사랑받은 국민소설 구운몽은 1687년 창작된 이후 필사본으로 전해지다 1725년 나주에서 목판본으로 출간되며 대량 보급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대중, 상업소설이 나주에서 탄생하게 됐다.

정병설 서울대 교수는 기초강연에서



1725년 나주에서 발간된 구운몽 나주판 책자

"나주판 구운몽 발간으로 한국 문학사에 대중소설 시장이 열렸다"며 "지방에서도 우리 문학사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나주목사 정각선의 집안 배경과 고려 시대부터 축적된 출판 인프라가 이러한 역사적 출판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탐골미술관에서는 특별전시



지난 27일 덕성여대에서 '구운몽' 나주판 출간 30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꿈으로 지은 집'이 개막됐다.

전시에서는 1725년 나주에서 발간된 구운몽 목판본을 비롯해 이광수, 최인훈 등 근현대 문학작품 속 '꿈'의 서사를 재조명했다.

강상구 나주부시장은 축사에서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읽히는 구운몽이 300년 전 나주에서 발간되었다

는 사실은 큰 자부심"이라며 "나주가 한국문학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운몽 나주판 발간 300주년 특별전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열리며 학술대회 자료집은 백호문화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담양군, '인구감소지역 정책간담회' 참석

지역소멸 위기 공동 대응 중앙정부-지자체-민간과 협력 논의

담양군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건의와 인구유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토론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모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중앙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담양군은 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출 기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등 32건의 건의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공동 전달했다.

이러한 정책토론에서는 인구유입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군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 위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고향사랑기부 참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인구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구례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직접 찾아가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방문하여 치매조기검진 완료

전남 구례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치매검진서비스'는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검진팀이 경로당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진팀은 인지선별검사(CIST)를 비롯해 치매예방교육과 홍보물품을 제공했으며, 총 66개소 경로당에서 818명의 어르신

이 검진에 참여했다.

검진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협약병원에 연계해 뇌영상 촬영 등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보건소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교실,



치매환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061-780-2933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24시간 가능) ☎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함평군공무원노조, 수해 피해 성금 300만 원 기탁

함평군공무원노조가 최근 수해를 입은 전남 함평군의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했다.

함평군은 1일 "함평군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함평군공무원노조는 함평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및 노사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 중인 노동조합이다.

정안식 노조위원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군민께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군민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노사 상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함평군공무원노조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피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